

코딱지 외계인 무찌르기

이용포 글 | 최향란 그림





이 책은 소아암 치료를 받고 있는 어린이들이
질병에 대해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치료과정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우정사업본부의 후원으로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서 제작하였습니다.



코딱지 외계인 무찌르기

이용포 글 | 최향란 그림

“외계인이 나타났다!”

지구를 점령하기 위해 무시무시한 외계인이 침략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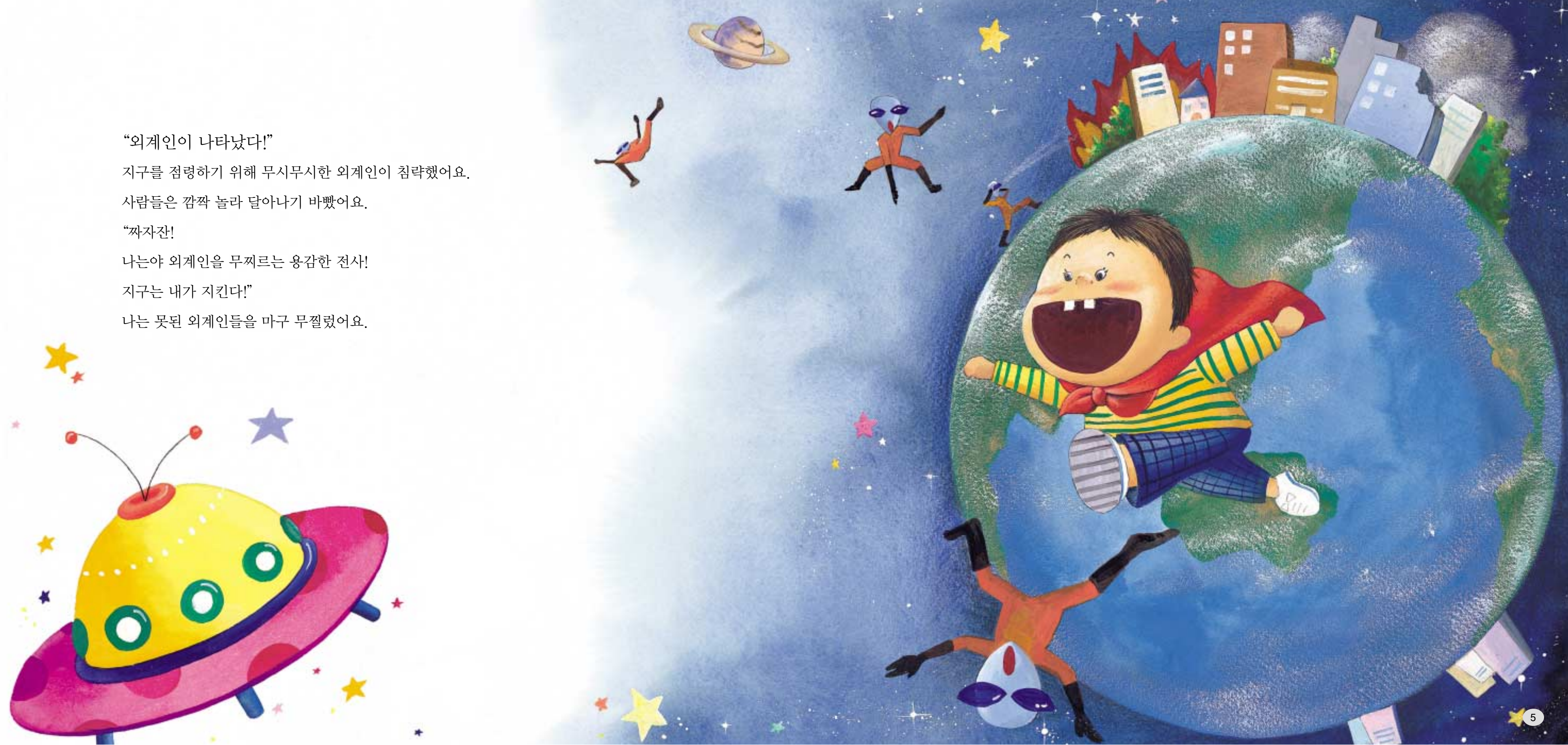
사람들은 깜짝 놀라 달아나기 바빴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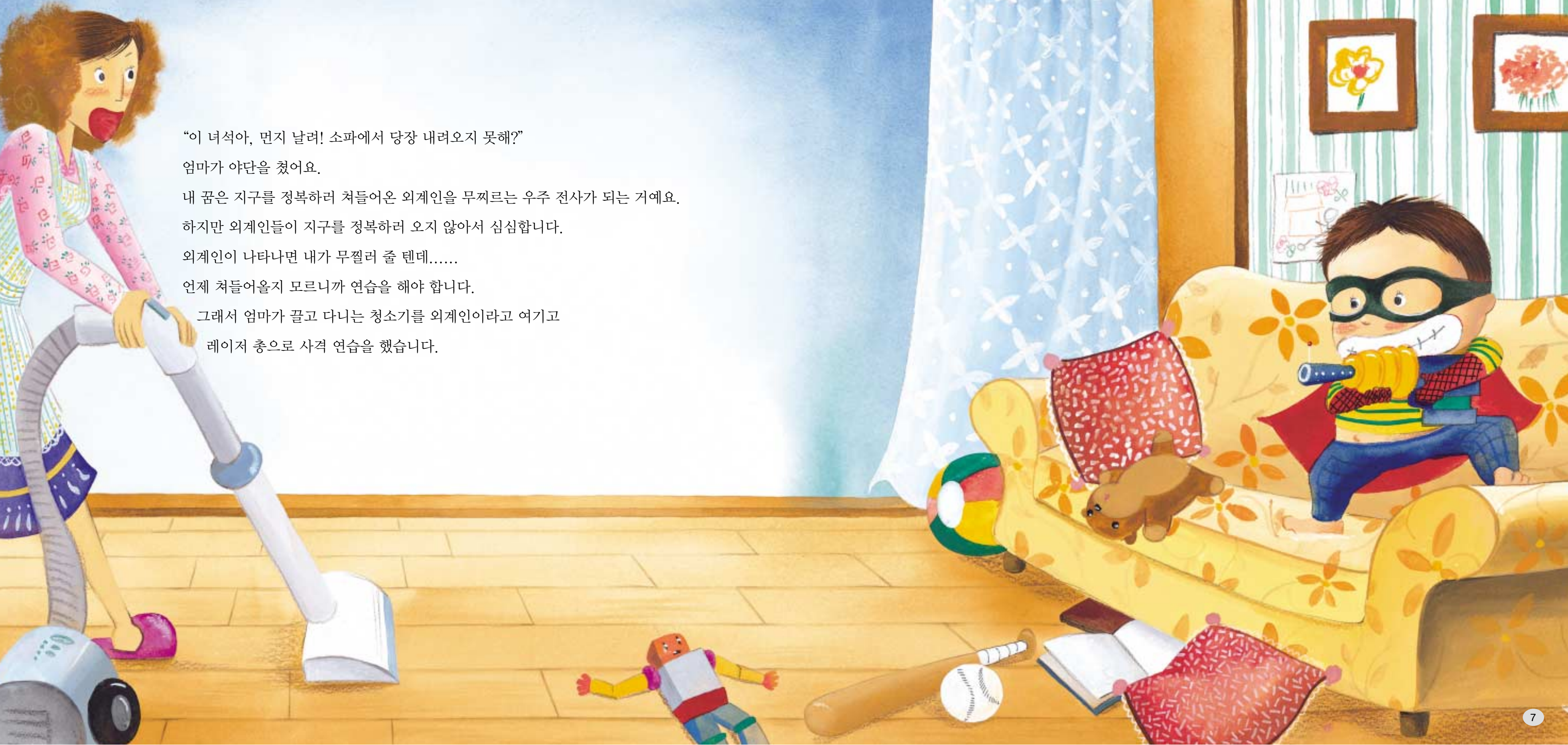
“짜자잔!

나는야 외계인을 무찌르는 용감한 전사!

지구는 내가 지킨다!”

나는 못된 외계인들을 마구 무찔렀어요.





“이 녀석아, 먼지 날려! 소파에서 당장 내려오지 못해?”

엄마가 야단을 쳤어요.

내 꿈은 지구를 정복하러 쳐들어온 외계인을 무찌르는 우주 전사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외계인들이 지구를 정복하러 오지 않아서 심심합니다.

외계인이 나타나면 내가 무찔러 줄 텐데.....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끌고 다니는 청소기를 외계인이라고 여기고

레이저 총으로 사격 연습을 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 가기 전에 이를 닦고 세수를 할 때였어요.
갑자기 코에서 피가 흘렀어요.
피가 멈추지 않았어요.
자꾸 자꾸 흘렀어요.
나는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엄마를 불렀어요.
“엄마, 코피가 나와! 코피가, 코피가 멎질 않아.”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백혈병*이라고 했어요.
 처음 들어보는 병이었어요.
 “백혈병이 뭐예요?”
 의사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백혈병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지만
 무슨 소린지 잘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쉽게 말해서, 나쁜 외계인이 너의 몸에 침투한 거란다. 아주 고약한 외계인이지.”
 의사 선생님이 쉽게 설명을 해 주자 그제야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백혈병이란?** 혈액암의 일종인 백혈병은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암세포가 계속해서 만들어져 정상세포가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병입니다. 백혈병은 소아기 암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병으로, 해마다 국내에서는 약 370명의 어린이들이 백혈병으로 진단받고 있습니다.



짜짜한 외계인 같으니라구.

지구를 정복하러 오는 줄 알았더니 나를 정복하러 온 거야?

근데 어찌냐? 하필 외계인 전문 킬러한테 찾아오다니! 음화화!

이름부터 지어주겠어. 코딱지 외계인!

어때? 마음에 드냐?

코딱지 외계인, 잘 들어라!

난 널 파 버리겠어. 코딱지 파기가 내 특기거든.

널 파서 지구 밖으로 튕겨 주리라.

음화화화화!



머리를 뽕뽕 밀었습니다.

항암치료를 받으면 머리카락이 빠지니까 미리 깎는 거래요.*

머리카락 대신 이나 손톱이 빠지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치료가 끝나면 머리카락은 다시 자란대요.

그때는 일부러 이발소에 가서 뽕뽕 머리로 밀어야겠어요.

우주 전사에게는 뽕뽕 머리가 어울릴 것 같거든요.

인상을 좀 구기면 완전 우주 전사예요. 내가 봐도 무시무시해요!

전사는 전사다워야 합니다.

전사답게 인상을 좀 찌푸리고 다니기로 했습니다.

내 눈에 걸리는 건 무조건 일단 썰어보았어요.

***항암치료를 받는 친구들은 왜 머리카락이 빠지는 걸까요?** 암세포를 없애는 항암제는 그 힘이 너무 강력해서 암세포 뿐 아니라 건강한 세포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빠지기도 하고, 입 안이 헐기도 하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하지만 항암치료가 끝나면 모두 정상으로 되돌아옵니다.



골수검사*를 했습니다.

옆드려 누워 있으면 손가락만한 굵기의 주사기를 엉치뼈에다 사정없이 찔러
골수의 물을 빼갔어요.

울었냐고요? 사실은 많이 울었어요. 무진장 아팠거든요.

하지만, 내 몸 속에 들어가 있는 코딱지 외계인 녀석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한 거니까 참아야 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싸움에서 이기게 되어 있지요.

내 엉치뼈를 찌른 주사바늘을 기념으로 목에 걸고 다니고 싶어요.

외계인들이 바늘을 보면 무서워 벌벌 떨면서 달아날 거예요.

바늘이 엄청나게 굵고 길거든요.



***골수검사는 왜 하는 건가요?** 혈액세포를 만들어내는 골수를 검사하면 몸속에 암세포가 얼마나 많은지,
치료가 잘 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골수는 뼈 속 깊이 자리하고 있어 뼈 속으로
바늘을 꽂아야 하기 때문에 매우 아프다고 합니다.



드디어 조혈모세포 기증자가 나타났습니다.

부산에 사는 대학생 형이래요.

그 형은 틀림없이 천국에 갈 거예요.

왜냐하면 지구를 구했으니까요.

나는 지구를 점령하러 쳐들어오는 외계인으로부터 지구를 구해낼 우주 전사잖아요.

나를 구한 건 지구를 구한 거나 마찬가지로요.

만약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제일 먼저 그 형을 구해 줘야겠어요.





조혈모세포이식*을 하기 위해 무균실에 입원해서 고용량 항암치료를 받았어요.
 싸이토산도 맞았어요.
 빈크리스틴, 아라씨보다 독한 약이에요.
 제발 이 약을 맞고 코딱지 외계인 녀석이 항복을 했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내가 항복을 해야 할지도 몰라요.



***조혈모세포이식이란?** 소아 백혈병은 2~3년 동안의 항암치료를 통해 완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치료과정 중 재발하거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 조혈모세포이식 시행을 치료방법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조혈모세포이식은 강력한 항암제로 몸 속의 암세포를 제거한 후 건강한 혈액세포를 환자의 몸 속으로 넣어주는 치료방법으로, 수혈하듯이 합니다. 그 과정에서 작은 균 하나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균이 없는 치료실(무균실)에서 진행되고, 환자 혼자 들어가게 됩니다.



친구들과 하고 싶은 것!

알미운 아이 똥침 놓기



드림보 아이 의자 빼기

좋아하는 아이 등에 얼음 넣기

초인종 누르고 달아나기



불량식품 사 먹기

화장실 벽에 낙서하기

지하철이나 백화점 에스컬레이터 거꾸로 타기



먹고 싶은 것!*

자장면, 탕수육, 떡볶이, 피자, 햄버거, 라면, 치킨,
김밥, 호떡, 붕어빵, 아이스크림, 솜사탕, 엽기 꿈틀이 젤리.....



***항암치료 중인 아이들이 음식을 가려먹어야 하는 이유는?** 나쁜 균과 싸우는 힘이 약해진 환자들은
음식을 통해서 균이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익힌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오늘은 기분 나쁜 날.

하루 종일 토하고 엄마랑 싸웠거든요.

피자가 먹고 싶은데 못 먹게 하는 엄마가 너무너무 미워요.

간호사 선생님도 의사 선생님도 밉습니다.

내 몸속에 침투한 코딱지 외계인은 점점 튼튼해지는데

나는 반대로 약해지는 것 같아요.

코딱지 외계인이 무서워요.

코딱지 외계인은 왜 하필 내 몸에 들어왔을까요?

코딱지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싶어요.

한 번만 살려달라고 부탁하고 싶어요.

오늘처럼 너무 힘들 때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조혈모세포이식을 하는 날.
이식을 하고 나면 B형에서 O형으로 혈액형이 바뀔 거예요.
무서운 꿈을 꾸었어요.
코딱지 외계인이 흉측한 괴물로 변해 내 목을 조르는 꿈이었어요.
이러다 코딱지 외계인에게 항복하고 말면 어찌지요?
일곱 살밖에 안 됐는데 죽는 건 너무 억울해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요.
특히 콧수염을 1미터쯤 자라게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152세까지는 살아야 해요.
그리고 내가 죽으면 엄마 아빠가 너무 슬퍼할 거예요.
게다가 지구를 지켜야 하잖아요.
다시 힘을 내야겠어요.
코딱지 외계인 녀석을 반드시 물리치고 말 거예요!





이식이 끝나고 얼마 후에 생일을 맞이했어요.

엄마와 아빠,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들, 유치원 열매반 선생님,
세상에서 울 엄마 다음으로 예쁜 소망이 그리고 나처럼 백혈병을 앓다가
치료를 끝낸 자원봉사자 누나가 찾아왔어요.

근사한 선물을 잔뜩 받았습시다.

그 중에 배트맨 마스크, 슈퍼맨 망토, 스파이더맨 장갑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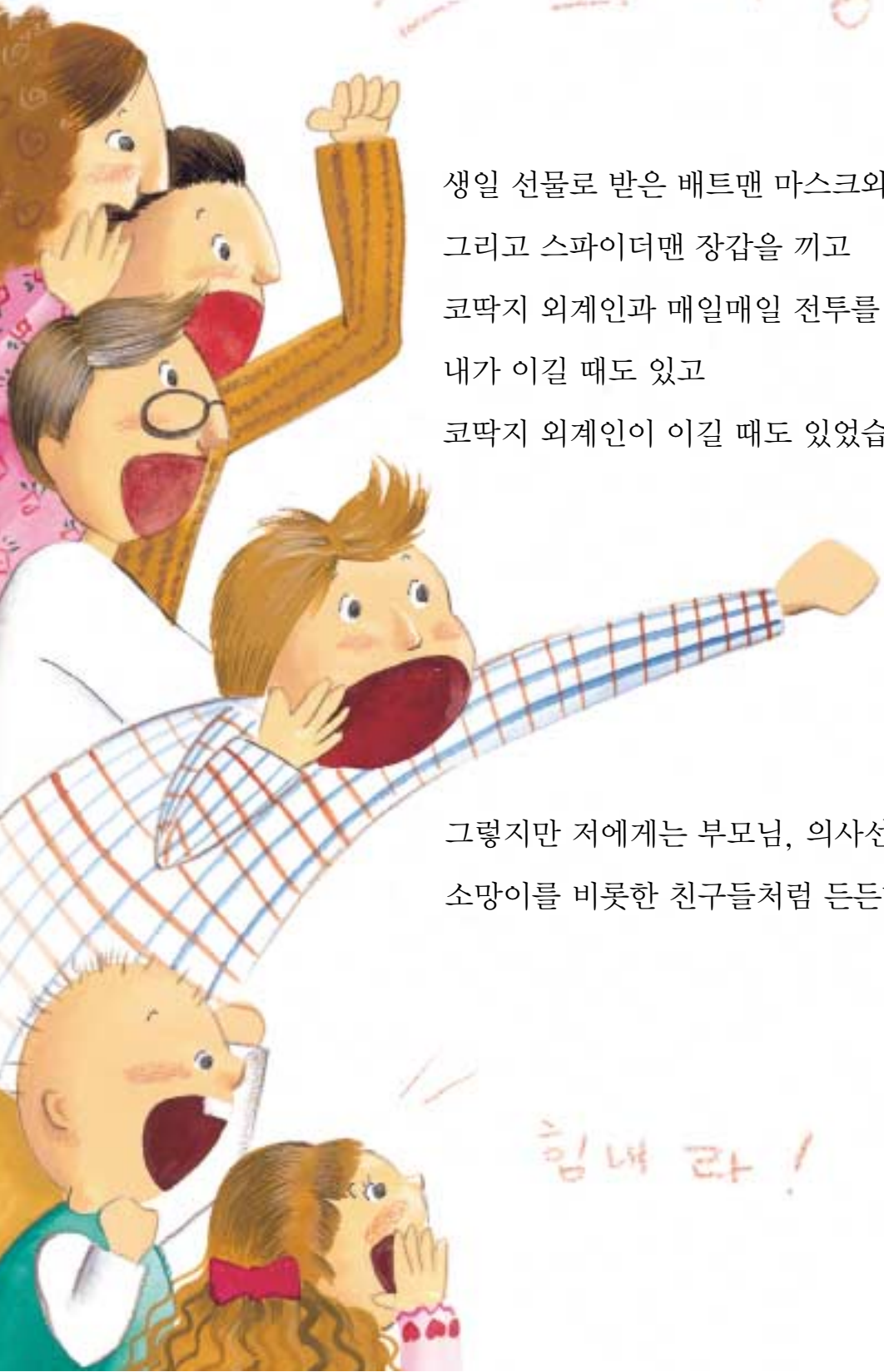


스화이팅!!!

생일 선물로 받은 배트맨 마스크와 슈퍼맨 망토,
그리고 스파이더맨 장갑을 끼고
코딱지 외계인과 매일매일 전투를 벌였어요.
내가 이길 때도 있고
코딱지 외계인이 이길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는 부모님, 의사선생님, 조혈모세포를 기증해 준 형,
소망이를 비롯한 친구들과처럼 든든한 지원군이 있어서 두렵지 않았어요.

힘내라!



오늘은 퇴원하는 날!

코딱지 외계인을 지구 밖으로 날려 버린 날입니다.

코딱지 외계인을 무찔러서 기분이 정말 좋아요.

하지만 코딱지 외계인이 고맙기도 해요.

코딱지가 아니었으면 숨을 쉰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을 테니까요.

파란 하늘과 흰 구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랐을 테니까요.

코딱지야 고마워!

하지만 코딱지야 이젠 안녕!

다신 내 몸에 들어오지 마!



글쓴이 이용포

강원도 평창에서 태어나 한양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문학과 비평사(1990년 여름호)〉에 '시간의 사용' 외 12편을 발표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해,
성장소설 〈느티는 아프다〉, 동화집 〈태진아 팬클럽 회장님〉, 인물이야기 〈하늘도 탐낸 아름다운 별, 이휘소〉 등을 출간했습니다.
꽃보다 사람이 아름답다는 당연한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고,
별처럼 아름답고 숭고하게 살다간 사람들의 삶을 찾는 일을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여기며,
길 위를 마주 걸어오는 사람의 과거를 상상하는 일이 취미이고,
아내와 함께 아들을 데리고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게 꿈입니다.

그린이 최향란

중앙북스-내 안의 돌고래를 찾아라
을지재단-사보&카렌터 일러스트
트랜스테크 코리아
KLPT(세계한국말인증시험위원회)
(주)세일CNP 외 다수
現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

코딱지 외계인 무찌르기

초판 발행 / 2007년 11월

지 은 이 / 이용포 글 최향란 그림
의학자문 / 안효섭(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 교수)
발 행 인 /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송상현 이사장
발 행 처 /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114-3
전 화: 02) 766-7671~3
홈페이지: <http://www.kclf.org>
이 메 일: cancer@kclf.org

비매품 본 재단의 허가없이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함